

‘헬시플레저’ 열풍에 무·논알콜 맥주 소비 ‘쑥’

〈건강+즐거움·Healthy+Pleasure〉

광주이마트 전년比 61.4% 매출 급증

전체 주류 소비 감소 속 음주문화 변화

논알콜 시장규모 내년 946억원 전망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열풍과 함께 가볍게 즐기는 음주문화가 확산하면서 무·논(알코올 1% 미만 포함된 음료)알콜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전체 주류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무알콜 맥주는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5일 광주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6-8월 무알콜 맥주 판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4% 증가했다. 주류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알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체 주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지난해 국내 주류 총고량은 288만8천kl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82만2천kl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380만4천kl과 비교하면 21.5% 감소한 규모다.

주요 주종의 출고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으며, 탁주(막걸리) 역시 5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전반적인 주류 시장이 성장 정체에 들어선 가운데 소비자들의 음주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비·무알콜 맥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과 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음주 분위기는 즐기면서도 알코올 섭취는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제품이 새로운 소비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논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2년 만에 55.2% 성장했다. 오는 2027년에는 94

6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역시 비·무알콜 맥주를 주류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할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는 추세다.

과거에는 비·무알콜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무알콜 맥주뿐 아니라 논알콜 맥주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취향과 상황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물가로 외식과 주점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마트 등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집과 회사 등에서 즐기는 소비 방식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물가로 외식이나 술집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 혼자 즐기는 소비가 늘고 있다”며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술자리는 함께하되 건강과 절주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비·무알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GICON, 바이브코딩 해커톤 챌린지 개최

오는 17-18일…초·중학생 40명 대상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5일 “오는 17-18일 이틀간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 광주 SW미래채움 바이브코딩 해커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양한 지역문제를 탐색하고,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SW·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AI·소

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40명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5명씩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행사는 17일 사전교육과 18일 본 대회로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 등 관련 기술을 배우고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이어 본 대회에서는 팀원들과 협력해 아이디

어를 실제 결과물로 완성한다.

특히 학생들은 공공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연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해결책을 구현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1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SW미래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정호 GICON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뜻깊은 교육”이라며 “SW·AI 기술을 어렵게 느끼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도구로 경험하며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AMRO, 한국 올해 성장률 3.3%로 상향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가구(이하 AMRO)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 3.3%로 제시했다.

AMRO는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후 매분기(1·7·10월) 수정한다.

AMRO는 이달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은 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보다 0.2%포인트(p) 높였으며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0.5%p 상

향했다. 7월에 이어 성장률을 연속 상향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7월(2.6%)에서 이달 2.7%로 상향했고, 내년은 2.3%로 0.1%p 낮췄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올해와 내년 각각 연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견고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출·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

승은 시차를 두고 반영돼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AMRO는 향후 아세안+3 역내 경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둔화될 경우 역내 수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운송·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 현상(엘니뇨)으로 식료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주 강세가 주도하는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및 미국 통화정책에 관한 갑작스러운 기대 변화,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교역비용 증가·역내 공급망 균열 등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지난 2일 서울 리벨리온 본사에서 리벨리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국산 NPU 기반 전력 분야 AI 영상 분석 기술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변전소 감시 ‘국산 AI 반도체’ 쓴다

리벨리온·TTA와 기술협력 MOU

전력 AI 인프라 국산화 다변화 추진

한국전력이 변전소 감시 업무에 국산 NPU의 AI 영상분석을 활용한다.

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리벨리온 본사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국산 NPU 기반 전력 분야 AI 영상 분석 기술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소비인 AI 및 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전력 AI 인프라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앞서 기술검증을 통해 국산 NPU의 AI 영상분석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CCTV 영상을 통한 변전소 감시 업무에 시범 도입해 전력 현장에서의 성능과 운영 효율성을 실증한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전력 현장 시범운영과 활용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리벨리온은 NPU 성능 최적화와 기술지원을 맡는다.

TTA는 국산 AI 반도체 성능 평가지표 ‘K-Perf’를 기반으로 전력 현장 운영환경을 반영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세 기관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NPU의 전력 분야 적용과 공공부문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기존의 변전소별 GPU 분산 운영 방식에서 지역망 관제센터 중심의 NPU 집중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AI 영상 분석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다양한 AI 반도체를 전력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은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 전력 현장에 적용해 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의 현장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부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태블릿,TV,PC 모두를 위한 **Type A,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발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 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 표 이 범 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 업 내 용

건 물 관 리 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 소 용 역 업
경 비 용 역 업
승 강 기 관 리 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

CMYK